

“아이도 좋아했던 야시장 시즌3 끝나니 아쉬워요”

대인예술시장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 마지막 날 가보니

공연 즐기고 먹거리 나누고 시장 곳곳서 다양한 행사 가족·친구·연인 등 나들이... 하루 평균 1만여명 방문

“남도달밤야시장이 열리면 아이가 가지고 놀러서 매번 방문했는데, 올해 야시장이 끝났더니 아쉽네요.”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예술시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인들과 나들이 나온 가족, 연인, 친구들과 모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이날 야시장의 서막은 중앙무대에 선 테너 송태왕의 ‘문 리버’ 노래와 함께 열렸다. 중앙무대로 모여든 관객들은 ‘브라보’, ‘앙코르’를 외치며 호응했다.

무대 앞에서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아이의 손에 풍선을 쥐어주고, 골목마다 펼쳐진 테이블에는 음식을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남도달밤야시장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인시장상인회가 협력하는 광주시 최대 규모의 야시장이다.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지역민이 찾을 만큼 호응도가 높다.

이번 야시장에서는 지난 행사에서 드러난 한계

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인과 함께 야시장을 방문한 이시은(여·27)씨는 “지난 10월에도 두 차례 남도달밤야시장을 방문했는데 콘텐츠가 중앙무대 주변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대인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풍성했다”고 말했다.

지역민의 호응이 높아 상인들도 활기가 넘쳤다.

40여년간 대인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김종남(여·65)씨는 “오랜만에 남녀노소로 북적이는 시장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다.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예전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장을 찾는다는 게 반갑다”며 “죽어가는 전통시장에 젊은 부부, 어린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웃어보였다.

다만 가족단위 방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무분별한 흡연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



올해 마지막 '남도달밤 야시장'이 열린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예술시장에서 방문객들이 먹거리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 보훈부 장관, 우회적 비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반대해 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도 광주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열린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장관이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리겠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지만 다분히 광주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강기정 광주시장장은 이날 서구에서 열린 김치 축제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기념식을 마친 뒤 김오복 전 대성여고 교장과 함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 생가와 흉상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교장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이다.

박 장관은 정율성 생가·흉상, 기념사업 등과 관련해 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고령화 광주·전남 농촌, 농기계 인명사고 많다

농업인 10명 중 6명 60대 이상...기계 조작 미숙·대응력 떨어져 안전교육만으론 한계...농업용 중장비 면허제 도입 등 대책 절실

전남지역에서 본격적인 추수철(10~11월)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 농민들의 조작미숙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인명피해가 이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80대 남성 A씨가 무안군 청계면에서 운전하던 경운기에서 추락했다. 오르막에서 갑자기 경운기가 뒤로 밀린 탓에 추락한 A씨는 경운기에 깔려 결국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9일에는 영암군 미암면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남성 B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 40분께 서구 용두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C씨가 트랙터에 다리가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C씨는 엄지발가락이 골절됐다.

같은 해 11월 2일 오전 9시께에는 북구 연제동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70대 D씨가 작업중 돌이 튀

어 허벅지를 크게 다쳤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51건에 달했다. 최근 3년(2020~2021년) 평균 68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모내기(5~6월)철에 이어 수확을 하는 10~11월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전남에서는 2020년 63건(5~6월 16건·10~11월 13건), 2021년 74건(5~6월 24건, 10~11월 10건), 2022년 67건(5~6월 24건, 10~11월 13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소방본부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환자를 이송한 건은 총 36건에 달했다.

해마다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전남 지자체는 교육과 안전 장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기계 대역전 사전 안내, 주의사항 고지, 예초기 안전점검, 많이 쓰는 농기계(트랙터, 예초기 등) 현장기술 교육 등

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해 예산 4억원을 들여 트랙터 등하장치(반사판, 방향지시등) 설치를 4000대 한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단순 안전교육만으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남 지역은 0~39세 농업인이 3만 9401명인데 비해 60~85세 농업인은 17만 4623명으로 전체 62%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만 803명, 70대가 6만 9228명, 80대 이상이 3만 159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역시 60~85세 이상 농업인은 1만 9000여명으로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 발생시 대부분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고령 농민들이 공간 감각이 떨어져 좁은 농로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발생시 빠르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농업인 스스로 주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농업용 중장비 면허와 기능제도 도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대인 기자 kdi@

광주·전남 오늘 오전까지 비...기온 '뚝'

광주·전남에서 6일 오전 가을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에는 6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거센 비가 내리고, 7일부터 9일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5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20~40mm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이날 낮까지 낮 기온은 20~21도를 보여 평년보다 살짝 높겠다. 다만 전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후 7일 부터 한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14~17도를 보이고 8일에도 16~19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9일에는 다시 20도에 육박하는 낮 최고기온을 보이겠지만, 이후 다시 낮최고 기온이 10도 초·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리기 전 20대 중반을 보이던 한낮 기온이 비가 그친 뒤 갑자기 20도 밑으로 떨어져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후에는 평년(아침 최저기온 4~11도, 낮 최고기온 18~20도)보다 기온이 약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7일 광주·전남 아침 기온은 6일보다 5~10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 당선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제14대 회장에 손영완(사진) 신장초등학교 교감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손 당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광주교총을 이끌게 된다.

광주교, 광주교대, 광주교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교총 제12대 수석부회장과 제38대 한



국교총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광주교총 이사와 교섭위원회 위원장, 교총 홍보감사,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